

광주시, 올해부터 청년 구직수당·일자리 공제 확대

청년 복지정책 '청년 곁에 광주' 구직수당 250만→300만 원 늘려 일자리스테이션 참여 8000명으로 '광주 3일 살기' 첫산...청년통 운영

광주시가 올해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일자리 지원과 청년의 자립·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한 '청년 곁에 광주'를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구직활동수당(드림수당) 확대 △청년도전 지원사업 △일자리스테이션 등 일자리정책과 함께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 △청년13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 '청년이 일하기 좋고, 정착하고 싶은 광주'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 곁에 광주' 정책은 먼저 지역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먼저 구직활동수당(드림수당)을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50만원씩 6개월)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또 개별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마련해 구직활동을 돕는다.

청년의 직무적성을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드림사업은 기존 주 25시간 5개월 근무에서 원하면 주 40시간 3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다. 참여 사업장에서 청년을 1년 더 채용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일자리스테이션의 참여 대상자를 7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포함한 직장적응 교육을 통해 입사 초기 청년이 직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장기 근속하도록 지원한다.

또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4종 서비스인 자격증 취득 지원, 면접장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인공지능(AI)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저소득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참여수당과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180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함께 주거·복지 정책도 병행된다. 지역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복지 정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정부의 청년공제 사업이 종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를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이 2년 간 500만원을 모으면 광주시와 기업이 500만원을 지원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일하는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청년13(일+삼)통장은 620명을 대상으로 월10만원씩 10개월 저축하면 광주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2.5% 중 2%를 최대 4년까지 5억5000만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월 20만원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청년월세는 5000여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1차 신청자를 오는 2월까지 추가 접수한다.

청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는 청년재무상담소(드림은행)를 운영한다. 연 9000여명인 군복무 청년을 위해 군복무 중 피해 발생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또 지역 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문화시설과 축제에 참여하는 광주 3일 살기 프로그램인 '청년, 광주 어때'를 새롭게 추진, 광주의 매력을 느끼고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해 맞춤형·원스톱·양방향 정보 제

공을 위해 구축한 청년통합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은 시험가동을 거쳐 4월께 개통할 계획이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청년들의 취업과 복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지지부진한尹 체포...'

1면서 계속 하얀 안전모를 쓰고 '백골단'이라 자처한 이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최근 민주노동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1991년 4월 명지대 학생으로 시위에 나섰다가 백골단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고(故) 강경대 열사의 부친 강민조(83)씨는 "하얀 안전모를 쓴 '백골단'을 TV로 보고 아찔했다. 저런 사람한테 맞아서 경대가 갔구나"라며 "(백골단 기자회견을 보고) 잠깐 때 본 얼굴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경대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억

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지역민들 역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정상택(56)씨는 "(강)경대의 관이 광주로 올때 현장에서 시위를 했었다.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지만 결국 국민이 이겼다"면서 "그렇게 힘겹게 물리친 백골단을 2025년에 국회의원이 다시 국회의사당으로 불러 들였다는 것에 경악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정씨는 "나 뿐 아니라 우리 세대 광주-전남 사람들은 백골단이라면 치를 떤다. 시위 현장에서 대학생들에게 날라차기를 하고 곤봉으로 머리를 으깨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라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공장 가동 후 첫 파업

노조간부들 부분파업으로 시작

임금·단체협약이 결렬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간부들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총력 투쟁을 예고해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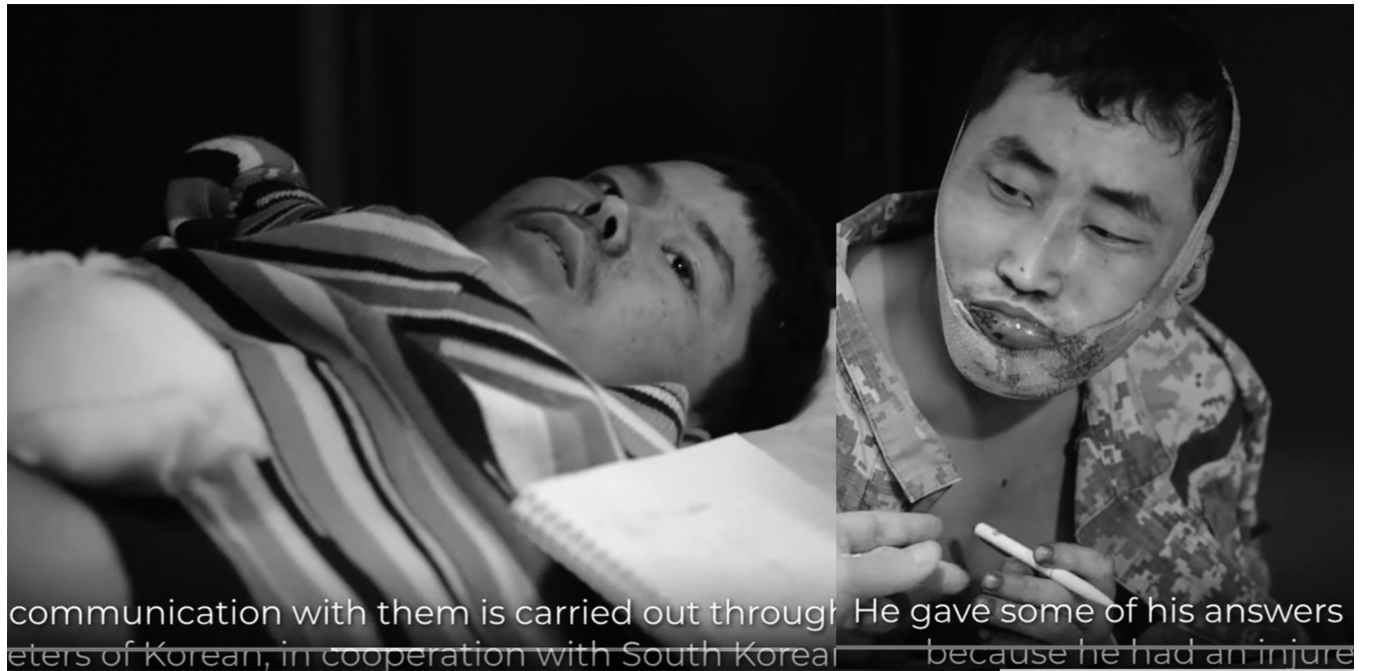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GGM지회 집행부 20여명은 지난 10일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4시간 하루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는 공장 가동 3년 4개월여 만에 첫 공식 파업이다.

노조는 이날 노조 집행부 전임 및 노조 사무실 마련 등을 포함해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 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 측이 요구

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주부터 파업 참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파업의 책임은 사용자, 광주시, 주주단이 '상생'의 길을 포기하고 '노조탄압'을 지속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노사상생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문구가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GGM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며 노조 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 해임, 회사 소식을 통해 노조를 비방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기자



communication with them is carried out through He gave some of his answers...
eters of Korean, in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because he had an injury

우크라이나, 생포 북한군 영상 공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11일(현지 시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페이스북 캡처·뉴시스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스포츠촬영/축제/산업현장/호텔/편식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10월 25일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익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청정자연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안길 78 (비아동) 청산인 박이천

부동산매매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29-17 6968㎡(2108평)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892-4 550㎡(166평)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20-1 3973㎡(1202평) = 11491㎡(3476평) 9억원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 2386㎡(722평)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3 44㎡(13평)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창 919-14 1072㎡(324평) = 3502㎡(1059평) 3억원
전체합계 14,993㎡(4535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에서 진출입가능
010-9119-4981

광고문의
지동 062)519-0710
팩스 062)519-0709
全南日報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뀔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발동해집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개발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삼거리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